

한 백부장의 믿음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7:1-10]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3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매, 4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오니이다. 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 이에 예수님께서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7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가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8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9 예수님께서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10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계급으로서 60 명에서 100 사이의 부하 군인들을 책임지는 직업 장교의 직책을 맡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명의 백부장에 관하여 읽을 수 있는데, 가버나움에 위치한 위에서 언급한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한 로마 군인들의 책임자 백부장,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전도로 믿게 된 고넬료가 그 세명입니다. 위의 백부장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 제국의 지방 책임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큰 권위와 세력을 가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로부터 이 백부장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의 역사와 종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의를 가져서 그들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가 보인 언행은 그가 가버나움의 유대인 회당의 건축을 위한 자금을 대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방의 식민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벗어난 것으로서, 이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그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수립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의 안위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서 주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도록 지역 유지들을 통하여 간청하는 적극적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는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주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께서가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낮은 신분을 인정하는 겸손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지역 사회에서 이 로마군 백부장의 지위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군인이 자신의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솔직하게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의 낮은 신분, 즉 자신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야께서 자신의 집에 오심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가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참으로 낮은 자신이 메시야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감당하기 힘들만큼 둘 사이에 커다란 신분의 격차가 있음도 인정하여 자기 대신에 친구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침례자 요한 역시 주 예수님에 대하여 유사한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제자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즉, 그가 주 예수님의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 끈을 매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을만큼 그분의 위엄과 존귀함이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모계로 예수님과 친척 관계로서 약 반년 먼저 출생한 형님 별이 되는 사이이었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높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것입니다.

[마가복음 1:7-8]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8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어부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초능력의 발현을 눈으로 보고 나서 그분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신 메시야의 앞에 자신이 있을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그분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4-8]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5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7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 많은 오해와 멸시와 의심과 미움과 불신의 불공정한 처우를 견디셨습니다. 대부분은 당시에 교육받은 사회의 지배 계층,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대변되는 종교적 지도층으로부터 이러한 나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음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과 종들을 학대하고 대부분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부패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문화를 비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 원치 않았습니까. 그 대신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경배는 일년에 한두번 성전에 가는 의례적인 행사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서 그들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그들은 대언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통하여 직접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언행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대부분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멸시하고 질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군인 장교 한 사람이 유대 종교에 심취하고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알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구세주 메시아로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여, 반면에 자신의 낮은 처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의 단순하고 큰 믿음의 표현을 접하고 놀라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날은 메시아 예수님께 놀라움의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보여주지 않는 커다란 믿음,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이방인의 믿음이 그분의 가슴에 큰 기쁨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발생한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로부터 다음 두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인류에게 유익한 도덕적 교훈을 가져다 준 위대한 선생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갈 때에 경배의 대상이며, 집에 오면 잊어 버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요 왕으로 존경하며, 거룩함으로 경배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존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깁니까?

두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청할 일이 있을 때에 이 백부장이 가졌던 단순한 믿음으로 구합니까?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루어 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날 이 백부장의 큰 믿음으로 하는 간청에 즉시,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이 반쯤 섞인 태도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의 습성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6-7]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시니 알지 못하거나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 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안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꼭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으로 믿는 믿음과 겸손한 제사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여러분의 사랑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2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South Korea: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